



심수륜 행력 및 복식 수습

김준권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선덕 | (주)엔가드 문화재 연구소장

청송심씨(靑松沈氏) 안효공손(安孝公孫) 정이공파(靖夷公派) 가계(家系)

[표 1] 청송심씨 안효공손 정이공파어비리 종중 가계도 49

심수륜 묘 출토 복식의 수습

I. 수습경위

II. 출토 유물

<그림 1> 심수륜 묘 개관 상태	52
<그림 2> 배위 인등권씨 묘 개관	52
<그림 3> 대렴 상태	52
<그림 4> 대렴 해체	53
<그림 5> 소렴 상태	53
<그림 6> 습 해체	53

III. 결론

청송심씨(靑松沈氏) 안효공손(安孝公孫) 정이공파(靖夷公派) 가계(家系)

김준권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용인시(龍仁市) 이동면(二東面) 어비리(魚肥里) 산56번지 내의 청송심씨 정이공파 어비리 중중¹⁾ 묘역에서 출토수습된 복식의 피장자는 시조(始祖) 심홍부(沈洪孚)의 11세손인 수륜(秀崙)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광흥봉사(廣興奉事)를 역임한 봉(兵)의 3남 1녀 중 맏아들로서 중중 29년(1534)에 태어나 선조 22년(1589)에 세상을 떠났다. 자(字)는 탁이(卓爾)이며, 벼슬은 종사랑(從仕郎)에 이르렀고, 부인은 부제학(副提學) 안동(安東) 권덕여(權德輿)의 딸이다.

세보에서 알 수 있는 수륜에 대한 사실은 간단한데, [표 1]에서처럼 안효공 온(濩)과 정이공 결(決)로 이어지는 가계를 통해 시조에서 수륜까지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청송심씨는 고려 때 궁중의 의물기기(儀物器機)의 출납을 관리하는 직책인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부(沈洪孚)를 시조로 한다. 그 세계(世系)는 홍부의 아들 연(淵)(?~1377)을 거쳐 시조의 증손이자 여말 전리정랑(典理正郎) 용(龍)의 아들인 덕부(德符)와 원부(元符) 형제에게서 크게 둘로 갈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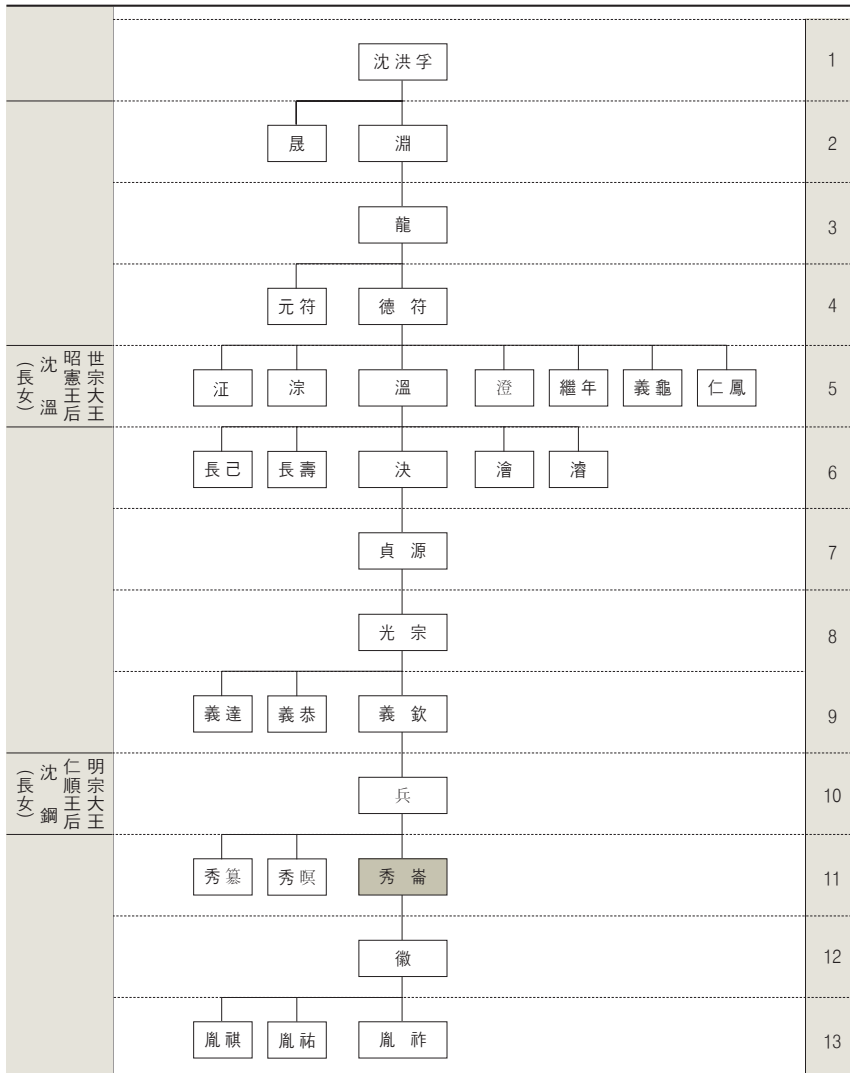
정안공(定安公) 덕부(德符)(1328~1401)는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청성백(靑城伯)에 봉하여졌다. 그는 고려말 정치체도의 개혁과 왜구토벌에 공을 세웠으며, 조선의 개국 후에는 신왕조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의 일곱 명의 아들 중 다섯째인 온(濩)은 세종의 장인이 되었고, 여섯째인 종(淙)은 태조의 사위가 되어,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거족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그에게서 이루어졌다. 덕부의 자손들이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벼슬길로 진출한 데 비해, 원부의 자손들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새 왕조의 벼슬을 마다하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간 선조 원부의 뜻을 지켜 고향 땅에 살면서 벼슬과는 멀어졌다.

1) 이 글은 청송심씨세보중수본(靑松沈氏世譜重修本)(현종 9년, 1843년 간행)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덕부의 아들 칠형제는 다시 도총제공파(都摠制公(仁鳳)派), 판사공파(判事公(義龜)派), 지성주사공파(知成州事公(繼年)派), 인수부윤공파(仁壽府尹公(澄)派), 안효공파(安孝公(溫)派), 청원군파(靑原君(淙)派), 동지총공파(同知摠公()派)의 앞뒤 파로 크게 갈라졌다. 이중 안효공 온(溫)(1375~1418)은 세종이 즉위하면서 영의정이 되었고, 1418년에 사은사(謝恩使)로서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이 때 그의 동생 정()이 병조판서 權습(朴習)과 함께 상왕인 태종의 병권장악을 비난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귀국 도중에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으로 압송,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수원 이의동에 묻혔다.

온에게서 아들 다섯과 딸 여섯이 태어났다. 순흥(順興) 안씨(安氏)와의 사이에 준(潛), 회(澮)(영의정 역임), 결(決)이 있고, 그 아래의 장수(長壽), 장기(長己)는 서손(庶孫)이다. 그의 맏딸은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온의 셋째 아들이며 소헌왕후에게는 동생이 되는 정이공(靖夷公) 결(決)(1419~1470)은 세조 때 공조판서를 거쳐 중1품의 보국승록대부에 올랐다. 결의 부인은 감사(監司) 거창(居

[표 1] 청송심씨 안효공손 정이공파 아버지 종중 가계도



昌) 신기(愼幾)의 딸이다. 그의 묘소가 용인(龍仁) 동면(東面) 어비동(魚肥洞) 운곡(雲谷, 일명 바운곡), 즉 현재의 이동면 어비리 산56번지 내에 자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비리를 중심으로 묘소가 형성되고 후손들이 모여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決)의 아들 정원(貞源) (?~1489)은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를 역임하였다. 부인은 현령 증직 관윤(縣令 增職 判尹) 안동(安東) 권맹정(權孟貞)의 딸인데, 후손이 없어 당질(堂姪)인 광종(光宗)을 양자로 들여 후사를 이었다. 정원과 부인의 묘소는 고양의 원당(元堂)에 마련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세보상으로 광종(光宗)은 정원(貞源)의 아들이나, 생부는 동중추공 미(湄) (湄的一子 濬의 아들)이다. 그는 창녕현감을 역임하였고, 첫째 부인은 도정숙(都正叔) 안동(安東) 김연(金演)의 딸로서 첫째 아들 의흠(義欽)을 낳았다. 둘째 부인은 부정(副正) 전의(全義) 이익희(李益禧)의 딸이며 다섯 아들을 낳았고, 이 중 의공(義恭)과 의달(義達) 이외의 아들들은 출계시켰다. 광종과 두 부인의 묘소는 용인 산의곡(山義谷), 즉 현재의 수원 이의동에 자리하였다.

광종의 첫째 아들 의흠(義欽)은 벼슬이 홍문전한(弘文典翰)에 이르렀다. 부인은 참찬(東贊) 과평(坡平) 윤금손(尹金孫)의 딸이며 첫째 아들 봉(兵)과 두 딸을 낳았다. 이 외에도 계보상으로 두 아들이 더 있으나 누구의 소생인지는 분명히 확인이 안되고 있다. 의흠과 부인의 묘소는 용인 산의곡에 쌍봉으로 마련하였다.

의흠의 아들 봉은 광흥봉사(廣興奉事)를 역임하였다. 첫째 부인은 성주(星州) 이씨(李氏)이고, 둘째 부인은 현령(縣令) 한양(漢陽) 조영조(趙榮祖)의 딸이다.

첫째 부인과는 소생이 없고, 둘째 부인 한양 조씨와의 사이에서 수륜(秀崙), 수아(秀娥), 수해(秀簾)의 3남과 1녀가 태어났다. 수륜의 아들은 첨지(僉知) 휘(徽) (1561~1642)이고 딸은 남양(南陽) 홍씨(洪氏) 집안으로 출가하였다. 수륜의 묘소와 마찬가지로 이후 아들 휘와 손자인 윤조(胤祚)의 묘소도 어비리에 자리하였다.

심수륜 묘 출토 복식 수습

김선덕 | 주)엔가드 문화재 연구소장, 전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

I. 수습경위

청송심씨(靑松沈氏) 정이공(靖夷公)과 십일세(十一世) 손(孫)인 수륜(秀崙, 1534~1589) 복식은 지난 2001년 9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 56번지 토운곡(吐雲谷)에서 이장작업 중 출토되었다.

이장 작업을 하던 청송심씨 후손 심민옥씨와 굴삭기 기사 김경래씨로부터 복식이 출토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봉분(封墳)을 열고 목관을 개봉하고 일부 염습을 해체한 상태였다. 묘역이 위치한 토운곡은 접근이 어려워 배를 이용하여 저수지를 건너서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가야만 했다. 현장에서의 복식 수습은 경기도박물관 김성환, 곽창호, 심영신, 김선덕¹⁾, 부혜선²⁾, 김규상³⁾이 담당하였다. 이장된 분묘는 심수륜(沈秀崙)과 배위(配位) 안동권씨(安東權氏) 내외 합장묘(合葬墓)와 십이세(十二世) 휘(徽, 1561~1642)와 배위 전주최씨(全州崔氏)의 합장묘 등 이었다. 이 가운데 심수륜의 염습의는 상태가 양호하여 수습하였지만 그 배위(配位)인 안동권씨의 염습의는 대부분 토양화 되었기 때문에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심수륜 내외의 분묘는 자연지반을 약 3m 정도 깊이로 조성하였고 지하수가 유입되어있는 상태였으며 회곽(灰槨), 목곽(木槨), 목관(木棺)의 순으로 전형적인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상례에 따라 장사지낸 것으로 보였다. 또한 목관의 형태는 두광족협(頭廣足狹) 형태이며 검은색 옷칠을 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관재(棺材)는 분석이나 샘플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지만 육안으로 보았을 때 소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1) 김선덕, 전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 현재 주)엔가드 문화재연구소장.

2) 부혜선, 전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 연구원, 현재 국립제주박물관 보존과학실.

3) 김규상, 전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현재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그림 1> 심수륜 묘 개관 상태



<그림 2> 배위 안동권씨 묘 개관



<그림 3> 대렴 상태

II. 출토 유물

일부 전세(傳世)되어 오는 복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식은 이장과 관련하여 출토되고 있으며 섬유의 상태나 복식의 형태 등이 대단히 양호한 상태로 지하에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인데 분묘에 유입된 지하수와 사대부가의 장법(葬法)이 복식을 보존되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복식이 출토된 심수륜의 분묘 역시 하부에 물이 차 있었고 격식을 갖춘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장례풍속(葬禮風俗)을 충실히 지켰던 것으로 보였다.

이장(移葬) 작업자들에 의해 일부가 찢겨지는 등 훼손(毀損) 되었고 염습의 전체가 벗겨져 있었지만 심하게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다<그림 1~6>.

복식의 상태가 비교적 온전했던 심수륜의 염습의를 가능한 한 현장에서 한 벌씩 해체 확인하지 않고 대렴 정도만 분리한 다음, 나머지는 염습상태 그대로 덩어리째 수습하여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로 운송하였다.

경사가 대단히 심한 산 중턱에 묘역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젖어있는 무거운 복식을 운반하기 위해 임시로 들 것을 만들어 운반하였으며, 박물관으로 운반된 복식 유물의 정리와 복식자료의 원형 확인은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의 송미경과 부혜선씨가 담당하였다. 정리과정은 사진을 찍고 VCR을 촬영하여 기록하였으며 복식 수습 전 이장작업 과정에 대한 사진은 후손 심민옥씨가 촬영해 놓은 사진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한 벌씩 분리하지 않고 덩어리째 수습하여 온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염습의 순서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토 복식의 수습은 일반 고고학적인 학술발굴 처럼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리하게 확인하는 것은 약화된 복식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어 가능하면 연구실 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장에서의 수습은 젖어있는 복식을 갑작스레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검은색 및 반투명의 큰 비닐주머니를 이용하였다.

수습 정리가 끝난 복식은 보존처리 전에 훈증소독을 먼저 실시한 후 보존처리는 세척과 보수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복식의 세척은 수원대학교 배상경교수가 1차 실시한 다음 송미경, 박진영이 보수·정리·실측작업을 실시하여 처리를 마무리 하였다.

지석(誌石)은 확인되지 않았고, 배위 안동권씨 묘에서 작은 백자 명기가 출토되었다. 심수륜(沈秀崙)의 관에서는 황교나 종교등 염을 했던 당시의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포, 겹쳐 입은 바지5벌, 단령, 금선단 철릭, 액주름포, 직령, 답포, 배자, 소모자 2점, 복건, 소렴금, 대렴금, 악수, 떡목, 명정 등 염습의 및 염습제구 46점이다. 부인인 안동권씨의 관에서는 복식류의 흔적만 확인하였고 수습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유물은 생물연대와 신분이 정확한 조선 중기의 남성복식으로서 복식사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손들에 의해 백자 명기 11점이

수습되었는데 굴삭기를 이용한 거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일부의 명기는 수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 56번지 일대에 위치했던 청송삼씨 정이공과 11세 손인 심수륜의 묘를 이장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출토된 복식 등을 경기도박물관이 2001년 9월 10일에 수습하였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2001년 긴급보존처리와 2003년도 보수 및 보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토운곡에서 출토된 심수륜(중종 29년~선조 22년)의 복식은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壬辰倭亂) 전의 반가의 남성복과 염습의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16세기 후기의 상장례의 변화와 복식의 변천 및 직물의 사용과 문양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훌륭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복식의 수습을 위해서는 현지의 지형과 교통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국토개발에 따른 복식 출토 예상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다양한 준비작업이 뒷받침 된다면 더 훌륭한 자료로서의 복식유물을 소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더 좋은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장작업으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이 묘역에 대한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자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대렴 해체



〈그림 5〉 소렴 상태



〈그림 6〉 습 해체